

200자 안내

사진입문

홍순대 지음

화가들의 '암상자'에서 비롯된 사진의 역사에서부터 카메라의 구조와 선택요령, 그리고 실제 촬영기법 등을 전문가(신구전문대 교수)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쓴 입문서. 카메라 보관법과 기초적 사진용어 등을 수록한 이 책에는, 유명 사진작가들의 명작도 수록돼 현대 사진의 흐름도 조망하게끔 편집했다.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의 139번째 권.

대원사/B6/128면/3500원

인테리어 디자인

박영순·오혜경 지음

주택의 디자인을 실제화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책으로, 다양한 이론적 소개와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고루 다룬 점이 돋보인다. 주택 실내디자인의 개요를 비롯해 실내디자인의 관련용어, 실내공간의 이해, 프로세스, 실내공간 계획, 재료 및 색채계획, 조명계획, 가구계획, 실내장식품 계획으로 짜여져 있다.

다섯수레/A5변형/196면/13,000원

셀레스트...

D.L. 윌터 지음/최진 옮김

미국의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이혼 후 혼자서 어린 딸 셀레스트를 키우는데, 그는 알콜중독인 부모 밑에서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한채 성장한 유년체험을 갖고 있다. 7년간 재치와 순수함을 보여주는 딸을 키우며 자신의 정신세계를 만들고, 유년기의 상처를 치유해간다는 게 이 책의 줄거리. 저자는 목욕을 거부하며 "이건 내몸이야"라고 외치는 딸 셀레스트를 자신의 "딸이자, 친구며,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명경/A5신/268면/4500원

소설 의상대사 (1·2)

이종익 지음

화염중 사상을 제창한 신라의 고승으로 범어사 등의 대사찰을 창건하는 업적을 남긴 의상대사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구도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도 조명하고 있는데, 신라의 귀족출신으로 화랑이 되어 묘화낭자와 진덕여왕의 사랑을 받기도 했던 고승 의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1권에서는 세속인으로서의 사랑과 갈등이, 2권에서는 명찰의 창건에 얽힌 일화 등이 그려진다.

민족사/A5신/298, 292면/각 5000원

아내와도 협상하라

피터 굿맨 외 지음/김남주 옮김

협상테크닉을 개발해 끊임없는 협상의 연속인 우리의 삶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자는 주장을 담고 있는 실용서. 인간심리를 응용한 독특한 협상전략과 장단기 협상법, 궁지에 몰렸을 때의 위기 대처법 등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간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130여가지의 협상테크닉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다. 상황에 따른 대응법을 즉각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편집의 장점.

심일월/A5신/184면/5000원

제국주의론

오의택 지음

1백여년에 이르는 제국주의의 형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그 사멸의 필연성을 역사적으로 추적한 책. 독점자본주의에 의해 세계를 식민지 체제로 분할해 지배했던 제국주의의 등장과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로 불리는 미국 중심의 세계적 독점체제로의 전환 등 그 전개과정, 그리고 현대 제국주의의 새로운 지배전략과 이에 저항하는 신식민지 민중의 모습을 보여준다. 구체적 사례와 자료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구성했다.

거름/A5신/156면/2800원

답을 빌려타고 가지

홍일표 엮음

「산을 잡아 오나라」에 이어 나온 '한국인의 삶' 시리즈의 둘째권. 우리 고유의 민담을 고전 문헌과 구전 자료를 발굴, 수집해 재해석한 글을 모았다. 시인인 엮은이가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문장을 다듬고, 만화가 김마정씨의 카툰 22컷을 수록했다. 단순히 옛이야기의 소개가 아니라 최근 우리의 정치 사회현상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도 크다. 실린 60여편의 민담의 공통주제는 "올바른 삶,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이다.

문화탐구/A5신/196면/4000원

오독이 경영

노구치 세이치 지음/오문환 옮김

기업경영에 실패했던 기업주들의 체험담을 통해 기업성공학을 보여주는 이색적인 기획에 의해 나온 책. 일본 팔기회 회원인 27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자신들의 실패과정과 재기과정

을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술과 여자에 빠져 실패한 경우나 의리와 인정 때문에 보증을 잘못 해주어 도산한 경험 등이 실패의 원인으로 묶여져 있다.

21세기북스/A5/240면/5500원

1초도 아까운 여자

김경옥 지음

삼성생명 판매여왕 김경옥씨의 세일즈 수기. 보험세일즈에 성공하기까지 지난 11년간의 경험을 담아 한국식 보험세일즈 교본으로도 읽히는데, 저자는 90년에 국내 최초로 세계 1백만불 원탁회의 정회원이 된 톱 세일즈우먼으로 지난해에는 연계약 43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성공한 여성직업인이 가정주부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내는지도 보여주는 이 책은,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각종 화법 대인관계술도 일러준다.

삶과꿈/A5신/250면/6000원

우울한 학자의 즐거운 궤변

장성정 지음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과 교수인 재미교포 학자가 최근의 우리 정치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경제에세이 모음. 요즘 국내 경제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돈과 인플레이, 경제와 기업의 통합, 선물거래, 기업책임의 한계, 거품경제 등에 대해 냉철하고 명쾌한 경제철학을 보여주는 저자는 "부당한 경제활동으로 서민생활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는 '경제살인죄'를 적용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열린원/A5신/304면/5500원

격동기에 도전하는 유통업의 경영혁신

한국산업훈련연구소 엮음

일본의 저명한 기업경영 컨설턴트인 후나이 유키오씨가 낸 「101의 경영법칙」 등의 책에서 주요부분을 발췌해 엮은 책. 유통업체의 증가와 이들 업체들의 판매전이 전개되면서, 유통업이 재래적 발달과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는 이 책은, 과학적인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고객만족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경영전략을 그림해설을 곁들여 소개한다.

한국산업훈련연구소/A5신/248면/4800원

隋流隋想

이석운 지음

七旬을 앞둔 한 기업경영인이 자신의 세계관과 종교관 등을 정리한 수필집. 특히 대자연의 오묘함과 그 속에서 자연을 등지고 있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 글들이 돋보이는 이 수필집의 서문에서 작가는

“육신의 늙어감은 어쩔 수 없지만 늙어가면서 지혜와 덕을 갖추는 때 늙음은 결코 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元老'의 참 뜻을 전해준다. 9장으로 나눠 75편의 글을 모았다.

불지사/A5신/304면/4500원

국제화 시대의 금융·경제 상식

강호상 지음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 등 주변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금융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한편 금융·경제 상식의 폭을 넓혀줄 만한 책. 금융부문의 국제화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전해주는데,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방안을 비롯해 옵션·스왑 등 최신 금융기법, 그리고 필수적인 금융·경제 관련상식 165가지를 문답형식에 담아 설명하고 있다.

김영사/A5신/206면/4500원

러브스토리 그리고 올리버스토리

에릭 시걸 지음/김승욱 옮김

최근 「닥터스」로 그 명성을 확인한 바 있는 작가의 등단작이며 대표작인 「러브스토리」와 후편 「올리버스토리」를 한데 묶었다. 소설은 물론 영화로도 세계적 흥행을 기록한 두 작품은 현대판 사랑의 고전으로 젊은이들의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대재벌의 아들 올리버와 빈곤한 이태리계 이민의 후손 제니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지만, 제니의 죽음으로 전편은 막을 내리고, 올리버는 마시란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

책나무/A5신/382면/5500원

마음의 진단

가와이 하야오 지음/이기형 옮김

심리학자인 저자가 마이니치 신문 고정란에 '인간의 심리'를 주제로 발표했던 글을 묶은 책. 날씨에도 변화가 있듯이 마음의 기상 역시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한다는 주제로, '나'는 누구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심리학적 문제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풀어쓴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강/A5신/238면/4500원

물은 건강의 묘약

서정진 지음

신풍제약연구소에 재직중인 약학박사가 어떻게 물을 이용해 건강을 증진시킬 것인가를 다룬 건강지침서. 물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물이 생물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물로 인한 질병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자는 물을 잘 이용하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험이 있

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예로 온천욕이나 목욕의 효과를 듣기도 한다. 이와 함께 물의 오염과 정수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서박/A5신/244면/5500원

생각은 힘이 세다

김재현, 장숙민 지음/위기철 엮음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저자들의 공저 「젊은 이들의 사유」란 책을 「철학은 내 친구」 「논리야 반갑다」 등을 펴낸 위기철씨가 우리 실정에 맞게 엮은 청소년을 위한 철학입문서. 각 주제마다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모두 38가지의 주제를 설명하고 해설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는데, 재봉틀에서 영사기를 착안해낸 뤼미에르 형제의 사고력이나 새어머니의 욕설을 기록해 나중에 작가로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등이 실려 있다.
청년사/A5신/190면/4000원

미친 시인의 사랑

C. 뷔코스키 지음/김영주 옮김
독일계 미국인으로 우체국 직원, 창고 직원, 사무원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한때는 감옥에까지 드나들었던 작가의 체험이 짙게 배인 소설. 알렌 긴즈버그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 시를 잘 써 주목을 끌었던 이 작가가 작품을 통해 다루고 있는 이슈는, 전쟁과 남녀 차별, 폭력에 대한 증오다. "뷔코스키의 모든 이야기는 악취를 풍길만큼 진실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자유사상사/A5신/274면/4500원

감각깨우기

루시 리델/박지명 옮김
인간의 천부적인 감각능력을 확인하고 개발 확대시키기 위한 건강지침서로, 동서고금의 기법을 소개한다. 제1부에서는 인간의 감각능력에 관한 기본지식과 감각능력 개발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으며, 2부에서는 누구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감각깨우기 기법들이 다루어진다. 셀프 마사지, 접지훈련, 태극권, 굶니 등 전통적 기법과 함께 2인 1조로 할 수 있는 현대적 기법도 소개돼 있다.
하남/A5신/188면/8000원

사랑 하나 눈물 반

SBS제작국 엮음
서울방송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행복찾기' 코너에 보내진 시청자들의 편지를 모아 엮은 책. 둘째아이를 낳기 위해 진통을 하던 주부가 새로 사온 휴지통을 움켜쥐자 남편이 새것이 찌그러진다며 잡아채었다는 에피소드를 비롯한 약 1백여편의 짙막한 편지글을 통해 부부간의 사랑과 고통 등을 엿볼 수 있다.
SBS프로덕션/A5신/306면/5000원

겸손의 송가

문홍수 지음
신앙이 깊은 한 젊은 법조인(현 서울고법 판사)의 명상록. "나라의 법은 국민의 복리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 법을 운용하는 법조인의 책임은 실로 막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있는 법조인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시대적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조인"이라는 게 김준근씨의 추천사.
홍성사/A5신/316면/4800원

사랑의 만찬

캐슬록크 지음/한명준 옮김
산타페에서 우유배달을 하던 윌리는 재개발을 빌미로 접근한 악덕부동산업자 프리맨의 덫에 걸려 집을 빼앗기고, 우연히 어떤 사건에 휘말려 총상을 입고 로스엔젤레스로 탈주해 한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냉동인간 보존을 연구하는 킬블레인박사에 의해 윌리와 처남 프랭크는 29년동안 냉동된 뒤, 돌발사고로 깨어나 부인과 가족들이 기다리는 산타페로 간신히 돌아온다.
시간과공간사/A5신/292면/5000원

계간지

작가세계(93년 여름)

[특집] 윤홍길, 「장마」에서 「에미」까지 ▲인간적 친화를 꿈꾸는 소설의 역정(황중연) ▲어느 풍속화가의 느릿느릿 세상읽기(박상기) ▲무제에서 무제로 떠나다가(김진석) ▲타인 안에서 나를 살다(정과리) ▲군력의 생태학(구모룡) ▲쌀(윤홍길)
[93 상반기 신인상] 소설 : 덕소 가는길(김재진) 시 : 강화에 대하여 외 4편(김연수) [시] 이인수/김승희/이창기/유하/박용하 [장편소설] 블랙 리포트(박상우) [단편소설] 길 위에 서서(채희운)
세계사/A5신/494면/7000원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의 야망

최부장은 아직 젊어서겠지요,
—그는 올해 38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보면
일에 대한 야망이 불꽃 같으니 말입니다.

하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책을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컴퓨터·반도체·통신을 모르고는 만들 수 없는
정보산업시대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는 요즘,
고부가가치 출판과 완벽한 출판을 위해
최첨단 출판시스템(CPTS)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인재양성과 고도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야망이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출판업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야망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PTS(Colorful Publishing Total System)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최병윤 부장

컴피아트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 · 참고서 · 전문지 · 각종사전 · 어학교재 등
- 교열 · 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황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 · 텍스트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레터링 등
- 제작대행 / 조판 · 제판 · 인쇄 · 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컴피아트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영문 전용입력기 2대
- 레이저 프린터 2대 •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영문 전용 출력기 1대

지식산업의 파이오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3
FAX : 739-9356 MODEM :